

AJU CAPITAL

2012. 4Q 실적 IR

01. Company Overview

02. Business Competitive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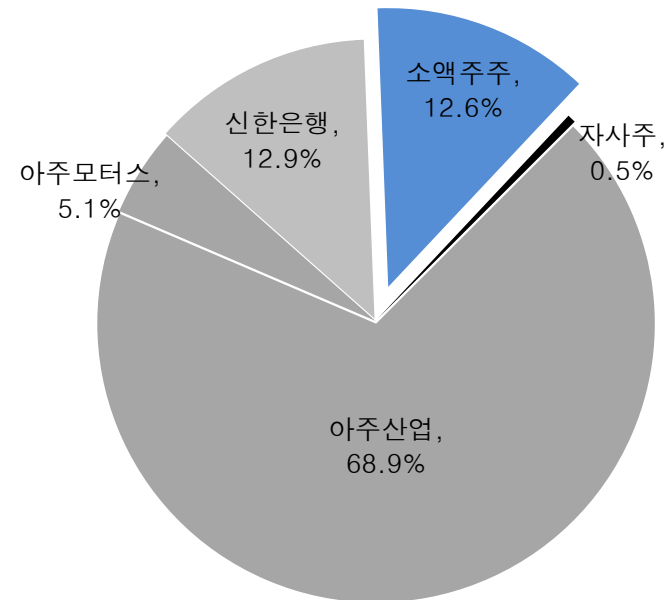
03. Investment Highlights

※ Appendix

1.1 회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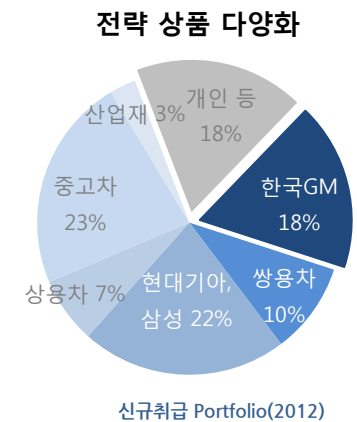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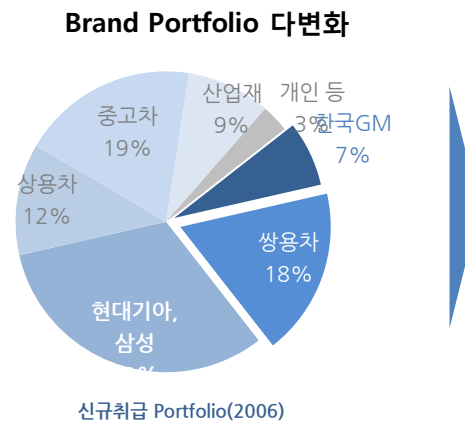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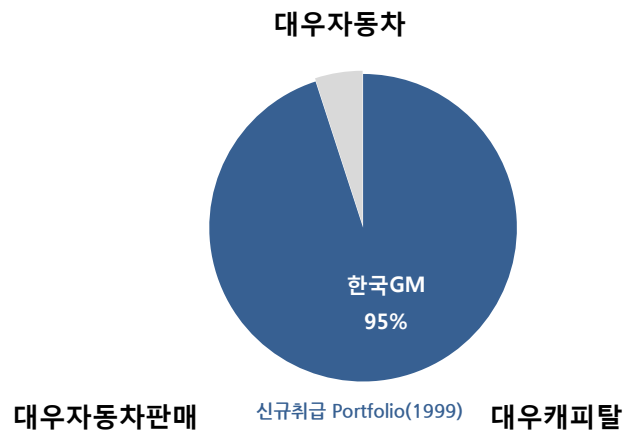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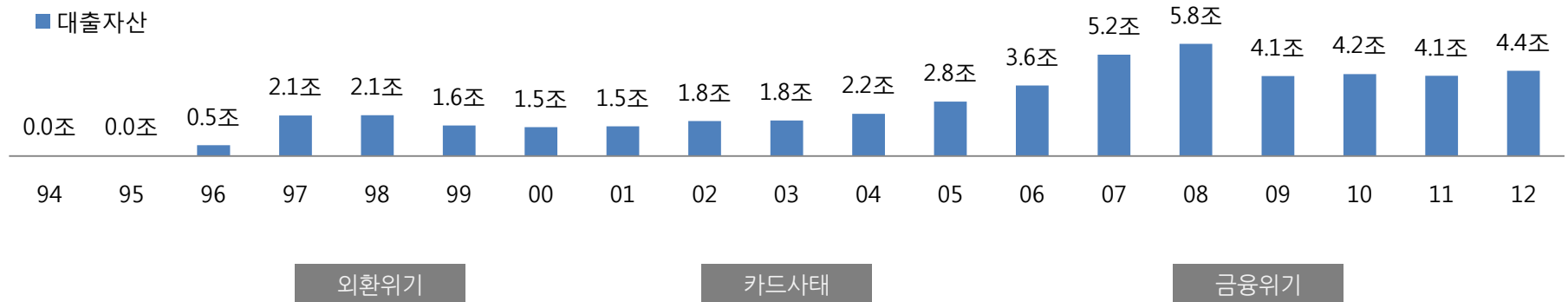
설 립 일 자	1994년 2월 21일
대 표 이 사	이 윤 중 (2009년 8월 취임)
업 종	여신전문금융업 (할부, 리스, 신기술)
영 업 망	전국 30개 지점 8개 출장소
신 용 등 급	회사채 A+ / 기업어음 A2+
자 산 규 모	5조 8,844억원
상 장 일 자	2009년 6월 25일 (유가증권시장)
임 직 원	656명 (Agency 별도)

[주주구성 (총 5,755만주)]



1.2 아주캐피탈 History

▪ 19년 금융 Know how와 위기 극복 DNA



1.3 아주그룹 현황

2011년말 기준

Since 1960
30개 계열사

관리 자산
7.1 조원

임직원
1,600명

오토·금융 부문

- **아주모터스** (810억원)
- 한국GM 총판딜러
- **아주캐피탈** (48,615억원)
- Auto금융, 리스금융,
개인대출, 기업금융
- **아주IB투자**
- 舊 기보캐피탈
- 벤처캐피탈, (1,553억원)
- **아주저축** (6,179억원)
- 100%
- **아주자산운용** (38억원)



건자재 부문

- **아주산업** (10,500억원)
- 기능성레미콘, PHC파일,
슈퍼몰탈, 골재 등 생산
- **아주아스콘** (176억원)
- 아스콘, 아스팔트 생산
- **브이샘** (161억원)
- 슬래그(시멘트 원료)생산
- **아주베트남** (142억원)
- PHC파일 생산



관광레저 부문

- **서교호텔** (1,337억원)
- 비즈니스 호텔 (서교동)
- **하얏트리젠시제주**
- 특급 호텔 (중문단지)
- **아주인베스트먼트** (191억원)
- 골프장 건설(진행중)



부동산개발 부문

- **아주프론티어** (634억원)
- 부동산 개발사업
- **아주글로벌** (257억원)

지원 부문

- **아주IT** (82억원)
- **아주복지재단**



1.4 사업 영역

자동차금융 (자산비중 84%, 할부, 론, 리스)

	신차승용	한국GM, 쌍용차, 현대, 기아, 삼성 등
	신차수입	Benz, BMW, Audi, Volkswagen, Toyota 등
	신차상용	현대, 기아, 타타대우, 볼보, 이베코, 만 등
	산업재	지게차, 굴삭기, 크레인 등
	중고차	승용차, 상용차 등

개인금융 (자산비중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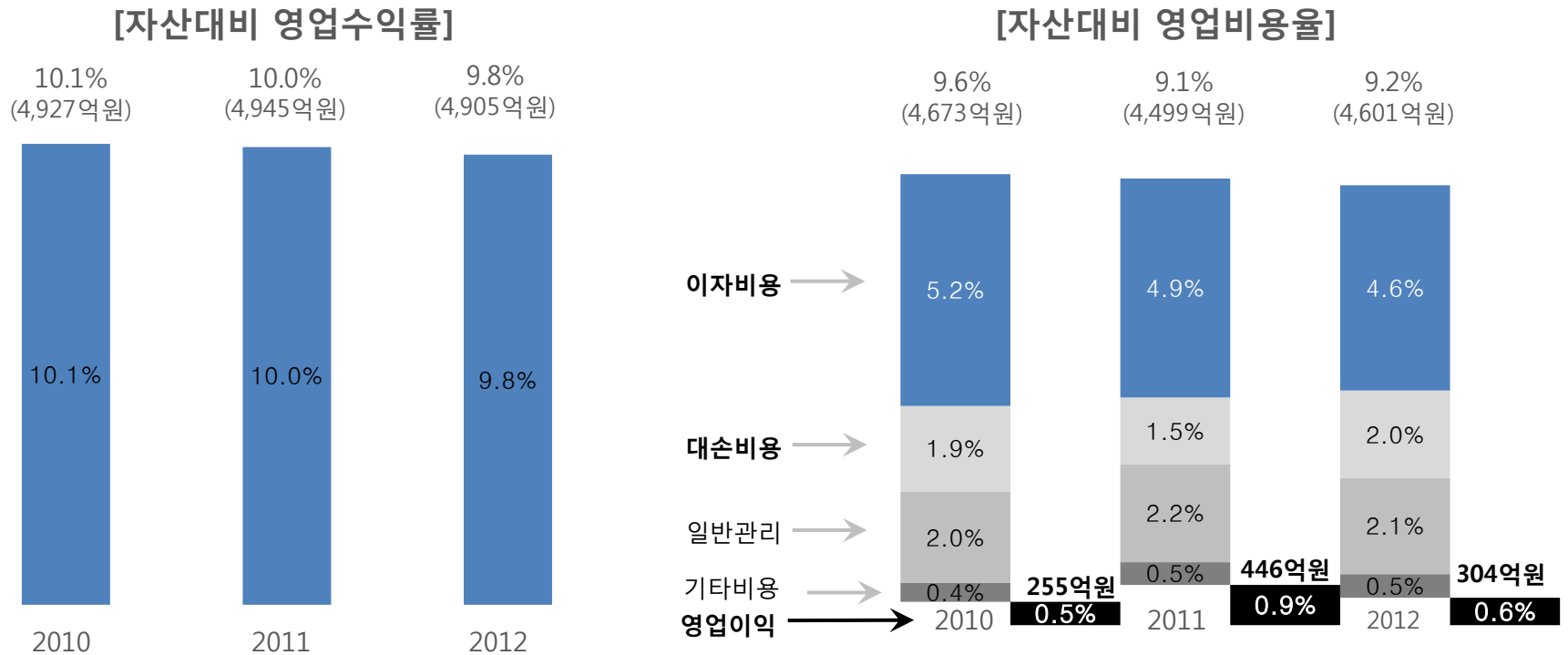
	신용대출	회사원, 자영업자 소액신용대출
	오토 담보론	자동차 담보대출
	Stock loan	주식 담보대출

기업금융 (자산비중 3%)

	기업여신	기업운전자금 등
	투자금융	PEF, BW인수 등

1.5 영업수익 구조

- 조달금리 하락으로 이자비용 절감
- 11년 대비 건전성 소폭 악화 대손비용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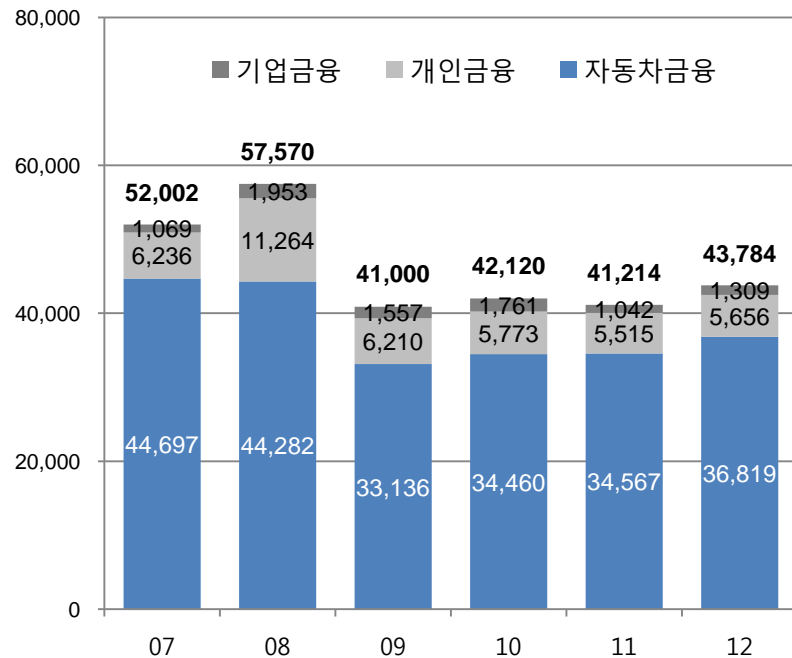
* 별도 IFRS 자산평균잔액 2010년 48,862억원, 2011년 49,494억원 2012년 49,854억원

* 수익비용 동일항목 차감 (리스수익/비용, 외화이익/손실, 투자이익/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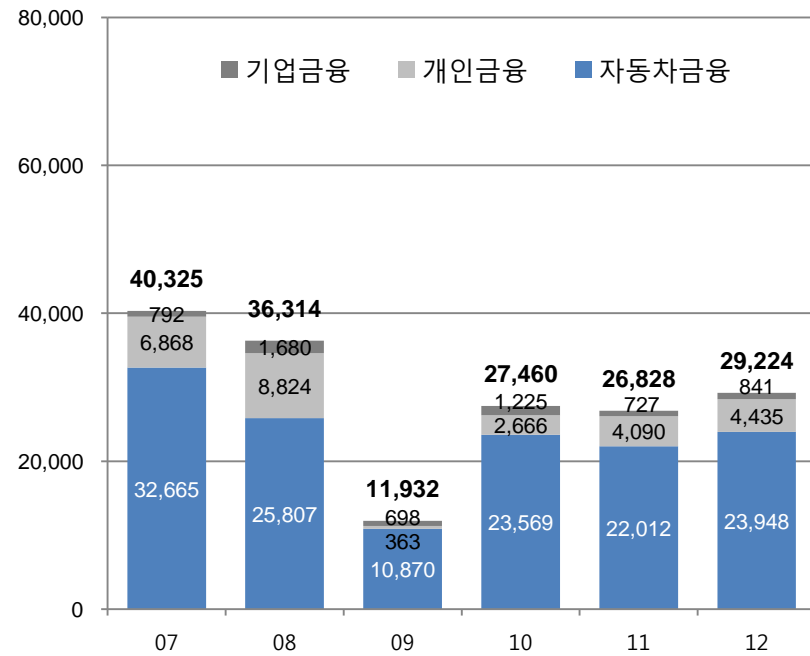
1.6 영업자산 성장

- De-leverage 이후 감내 가능한 risk를 적용한 성장전략
- 안전성이 검증된 자동차 금융 중심으로 Portfolio

[대출자산잔액 (억원)]



[신규대출금액 (억원)]



01. Company Overview

02. Business Competitive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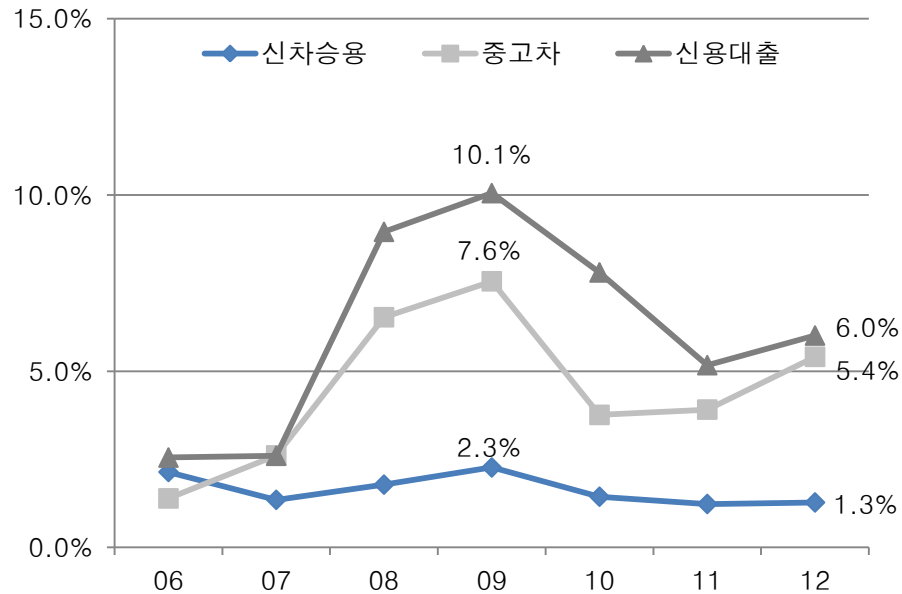
03. Investment Highlights

※ Append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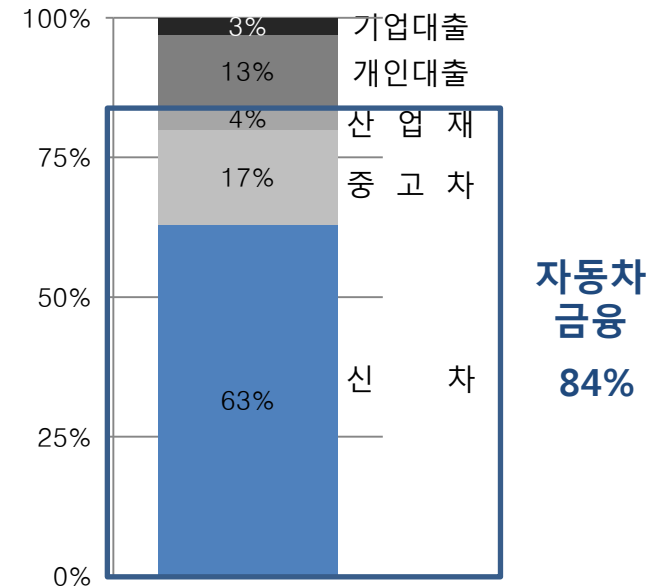
2.1 자산 구성

- 안정성 : 자동차금융은 경기하락에도 안정적이며, 연체 시 차량담보로 대출금 회수 가능
- 수익성 : 신차이자율 10%, 중고차 19%, 신용대출 26%

[아주캐피탈 상품별 연체율(+1m)]



[상품별 자산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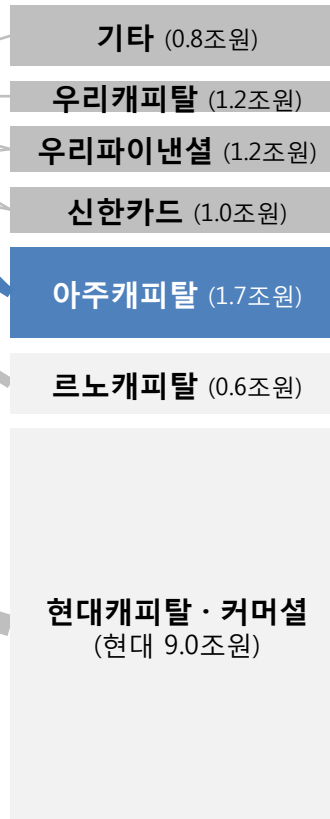


2.2 제휴 중심의 자동차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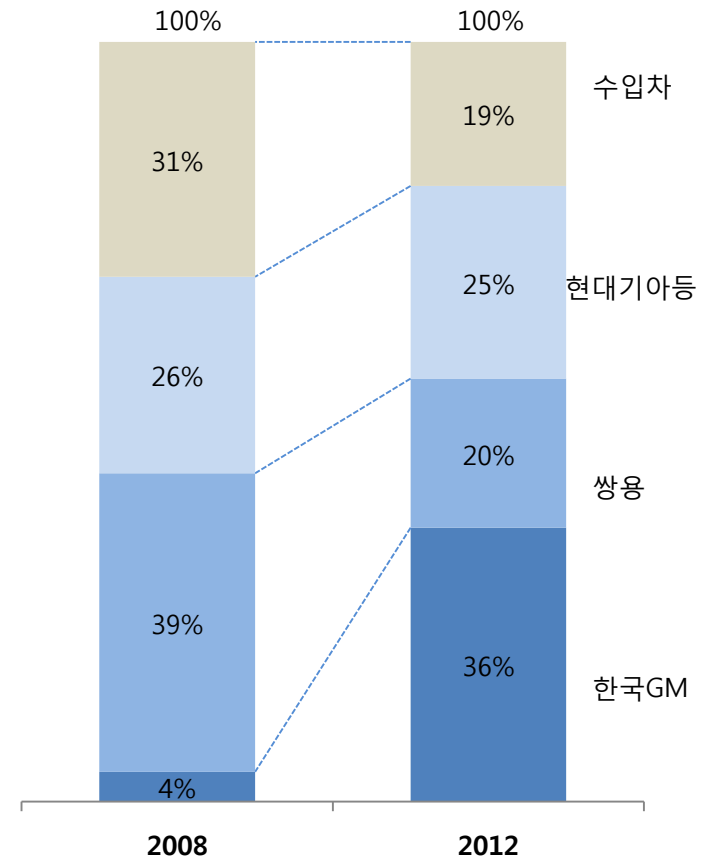
2012 연간 신차 판매
(153.9만대)



2012 연간 신차 금융
(15.5조원)



아주캐피탈 브랜드 별 신차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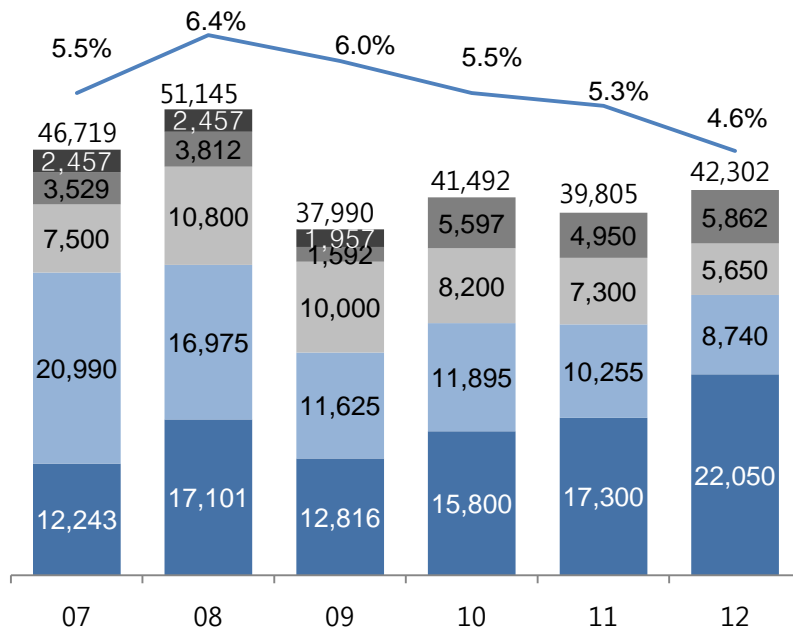


* 국산차 판매 : 한국공업협회, 수입차판매 : 수입차협회, 신차금융 : 자체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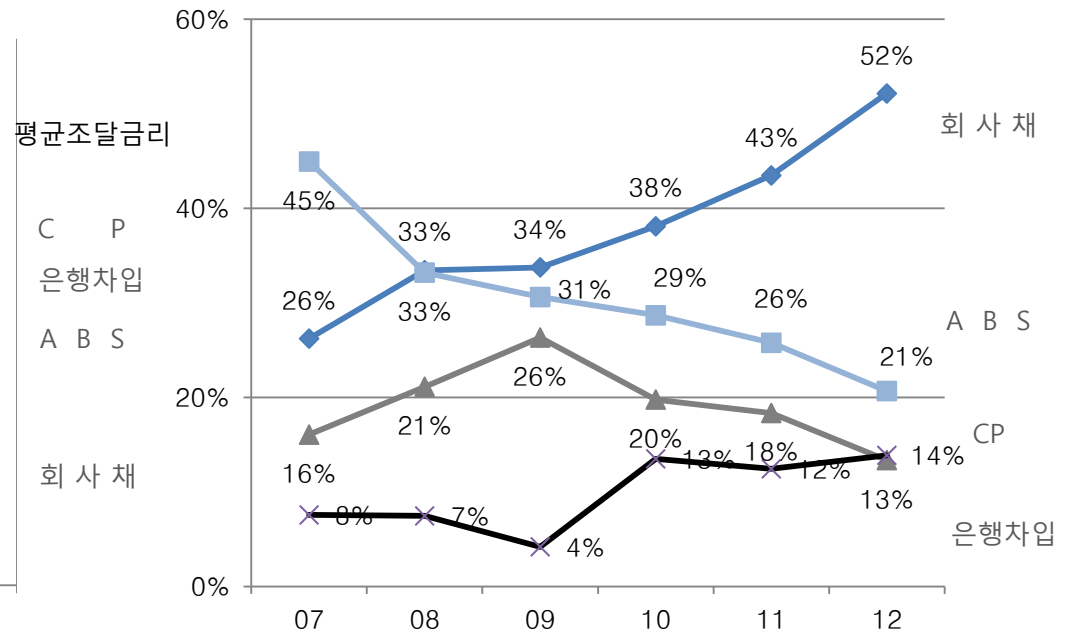
2.3 다변화된 조달원

- 다양한 조달 Portfolio로 유연한 시장대응
- 시장의 신뢰 확보로 무보증 회사채 (신용등급 : A+ stable) 조달비중 증가
- Credit line 3,700억원 확보로 조달 안정성 증대

[조달원별 잔액 (억원)]



[조달비중]



01. Company Overview

02. Business Competitive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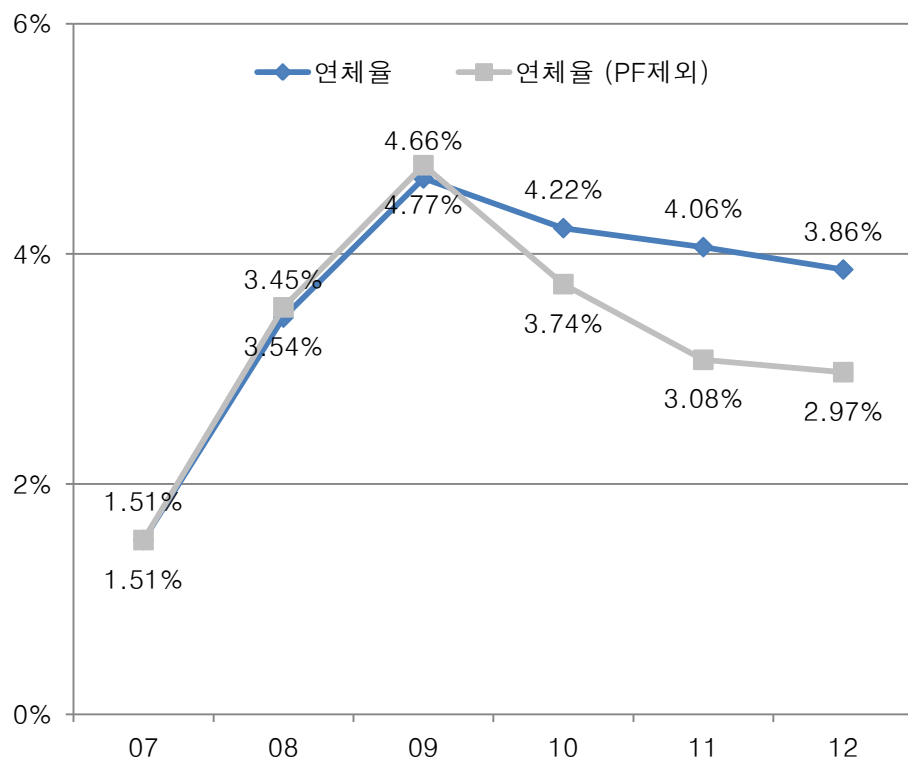
03. Investment Highlights

※ Appendix

3.1 연체율 하향 안정화

- 금융권 연체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량고객 중심의 영업 및 연체 방지 노력으로 연체율 하향 안정화
- PF, 거액여신 제외 시 금융위기 이전 수준 회복 (PF자산은 전체 자산의 1.1%)

[연체율 (+1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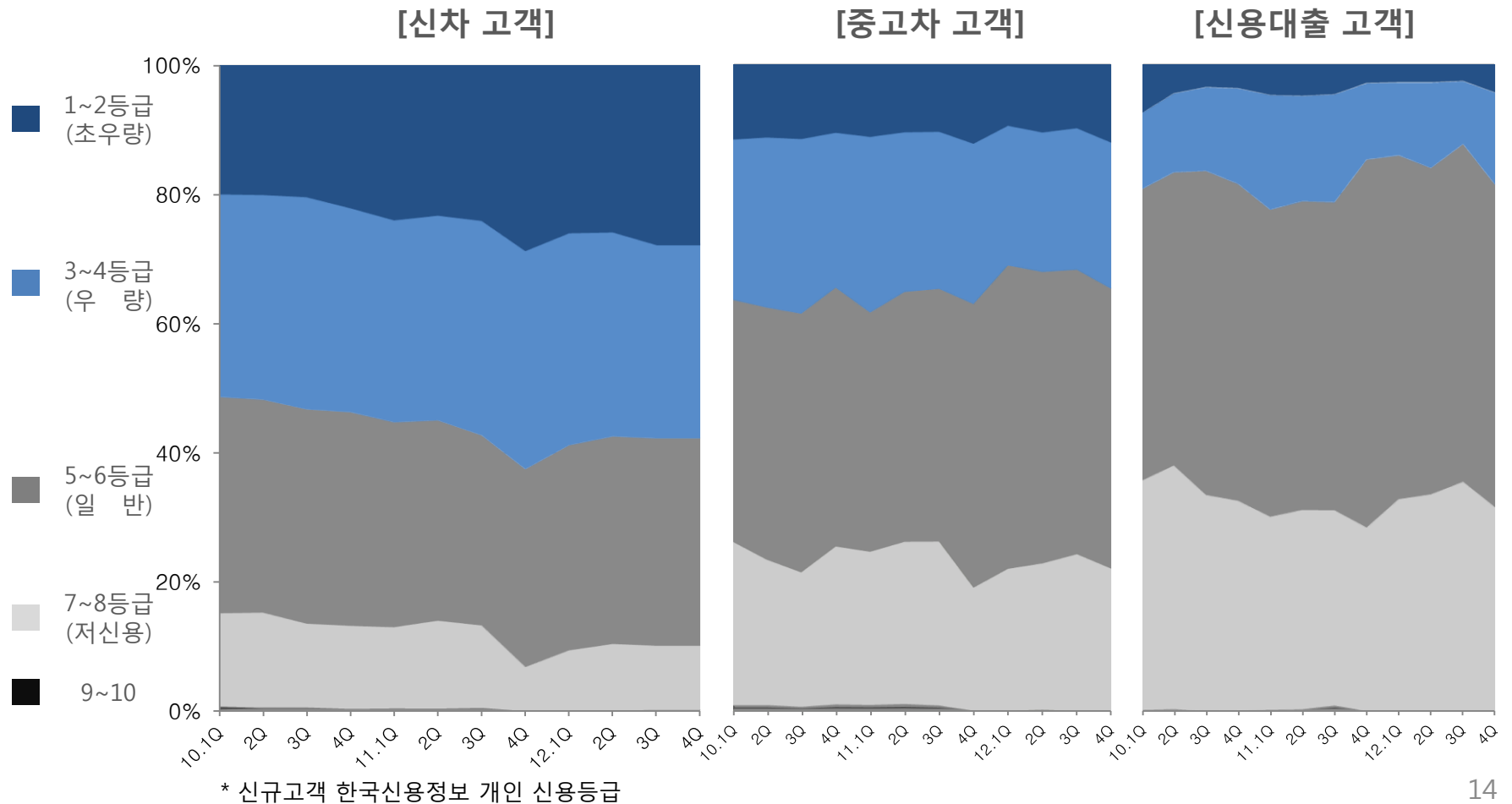
[금융위기 이전 실행 거액여신/투자 잔액(억원)]

구분	내용	대출잔액	총당금
PF	2007.07 장안동 자동차몰	177	47
	2008.05 인천 동춘동 주택 개발	150	39
	2007.11 영종도아파트	62	35
	2008.04 대치동상가	61	2
	2008.04 포항 호텔 사업지	16	16
	소계	466	139
기타	2009.01 중국 NPL	179	57
	2008.06 PEF(리딩증권, W저축)	22	
	소계	201	57
총계		667	196

* 2012년 말 기준

3.2 우량 고객 비중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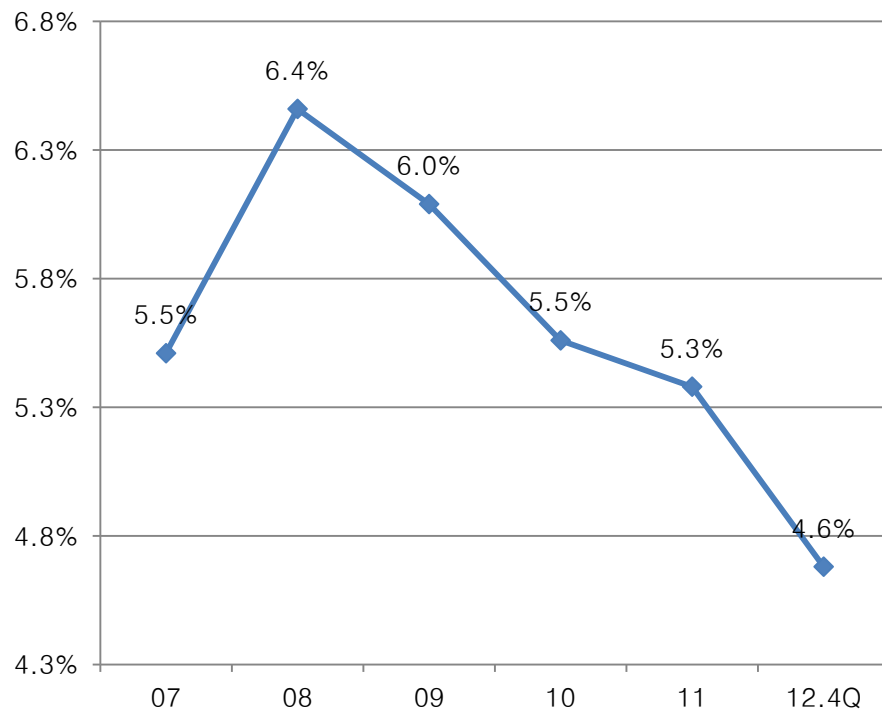
- Risk 관리 중심 영업으로 우량고객 확대
- 향후 대손상각비 감소로 수익성 개선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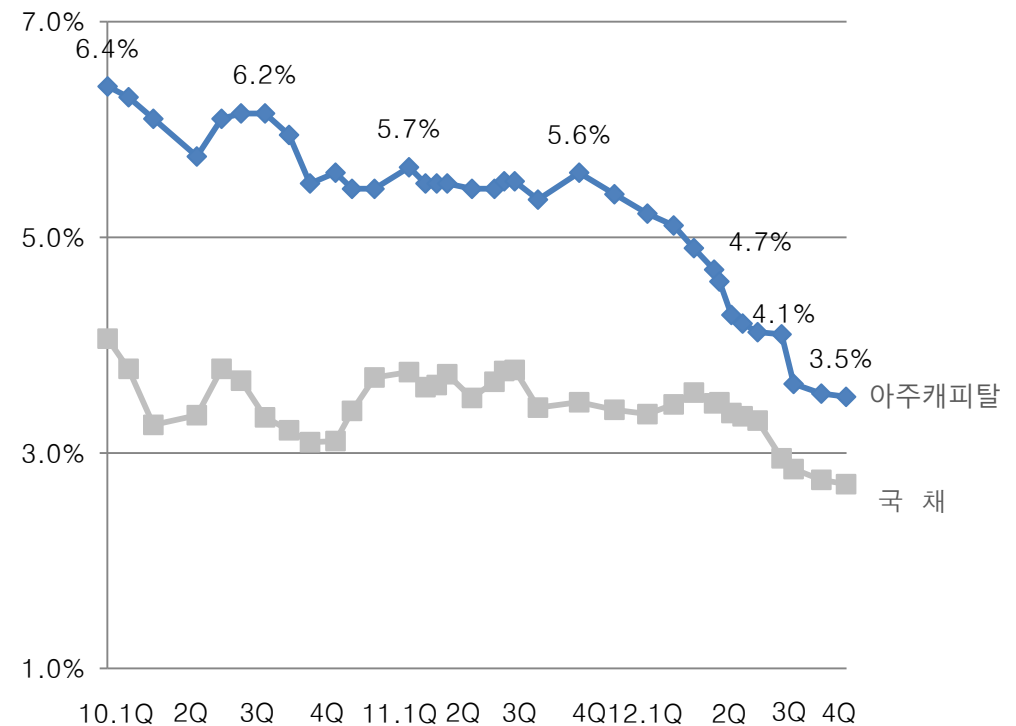
3.3 조달금리 지속 하락

- Risk 관리 강화로 조달금리 하락
- 회사채 발행금리 Spread (국채금리와의 차이) 축소

[평균조달금리 (잔액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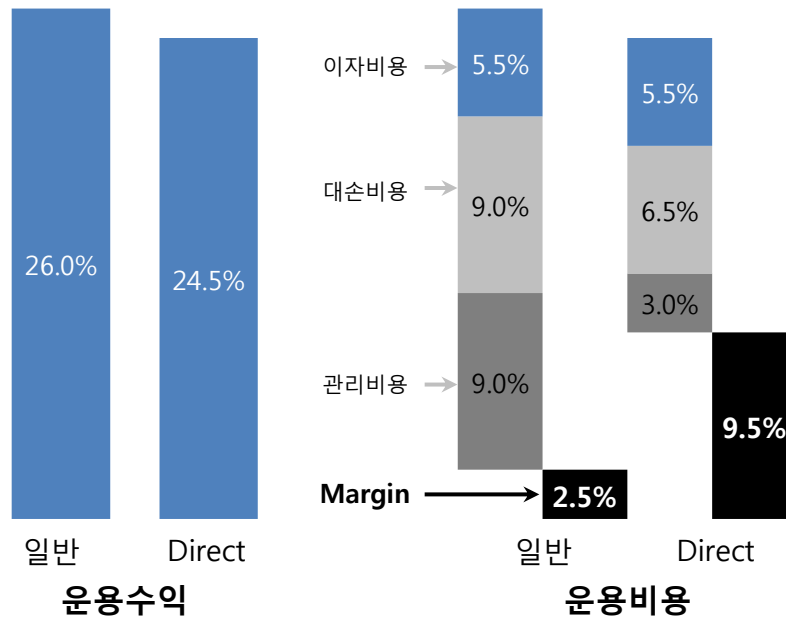
[회사채 발행금리 (2년 만기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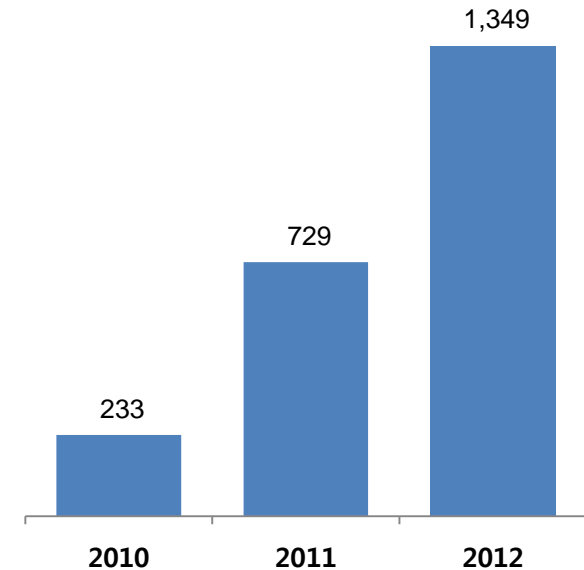
3.4 Direct channel로 추가 수익 확보

- Direct는 고객에게는 낮은 금리, 회사에는 높은 수익
- Direct 비중 지속확대 (10년 11%, 11년 22%, 12년 28%)

[신용대출 영업채널별 수익성 비교]



[Direct 신규대출 (억원)]



3.5 소액주주 차등 배당 정책

- 시가배당을 5% 이상 유지 노력
- 소액주주 유리한 차등 배당 정책

구분	2009	2010	2011	2012
소액주주배당(원)	230	300	400	300
대주주배당(원)	0	30	250	250
총배당금액(억원)	16	36	154	147
시가배당률(% (소액주주, 연말 종가 기준))	3.7%	6.4%	8.0%	7.5%
배당성향	12.8%	19.6%	28.9%	53.3%
회계기준	GAAP개별	GAAP개별	IFRS별도	IFRS별도

* 2010년 주식배당 포함

01. Company Overview

02. Business Competitiveness

03. Investment Highlights

※ Appendix

내실 경영의 안정적 성장

Business
Strategy

- 외형성장보다

내실성장 중요

- 내적 역량 강화

- 성장기반 구축

- 수익성, 안전성,

건전성, 부문의

균형 성장

“저축銀 새엔진 달고 역량·영역 더 키울것”

● 금융CEO 릴레이 인터뷰

대답=채원배 금융부장

“금융은 실패현상이 가장 위험합니다. 금융사는 여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고객을 잘 알아야 리스크관리가 되고 자산을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윤종 아주캐피탈 사장은 머니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경장이 가속화된 소액 신용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아주캐피탈은 자동차금융이 80% 이상

다 좋은 고객에게 좀더 좋은 금리를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사도 사업방식을 좀더 고민해야 한다”면서 “고객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객을 잘 알게 되면 더 좋은 금리를 줄 수 있는데 고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주캐피탈은 오는 5월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전면 업그레이드해 오픈할 계획이다. 리스크관리와 고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서다.

—리스크관리와 고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서다.

■ 이윤종 아주캐피탈 사장

드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은 ‘고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 우량 고객에게 교차 판매하는 개인대출 다이렉트를 지난해보다 2배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중고차 금융경쟁력을 위한 네트워크도 강화할 것입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하고 있는데 고객센터 확장효과가 있었습니까.

▶고객행복센터 확장으로 양적·질적 성장이 있었습니다. 개인대출 다이렉트 영업액은 지난해 740억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고 리스크를

“

오토론·개인 다이렉트
전년비 2배 성장 기대

멤버십 대출카드 등
다양한 상품 선보일 것

정도로 체질 개선을 이룬 한해였다고 자부합니다.

—이번에도 소액주주를 위해 차등배

있을 것입니다. 우선 신용대출,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소비자금융 중심의 우량 저축은행으로 육성된 후 저축은행의 결제기능과 보험판매 등을 활용해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축은행 정상화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지난 2월 주주총회를 통해 사명을 변경하고 대표를 선임했고 3월 중 서울 3개, 경기도 1개 지점을 신설해 출범할 계획입니다. 올해 약 3000억원의 신규 영업을 통해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내년부터는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2014년엔 자산규모 1조원 이상,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

“은행보다 뛰어난 캐피탈 만든다”

이윤종 아주캐피탈 사장의 ‘관리경영’

금융은 위험관리 비즈니스
리스크 분석팀 등 전문성 확보
상반기 영업의 늘고 연체율 하락

인수한 저축은행 1년내 정상화
꼼꼼한 실사로 추가 부실 없어

금융사 성장의 원천은 고객
3년 연속 서비스 대상
모든 시스템 고객 눈높이서 점검

하락했습니다. 대출자산의 질은 꾸준히 개선될 전망입니다.”

▶다른 캐피탈업체와 가장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저희 회사는 자동차금융이 전체 자산의 84%를 차지하는데 용이 참 좋습니다. 자동차금융은 신차금융의 경우 연체율이 1%도 안 되는 안전자산인 데다 포트폴리오도 다양합니다. 신차, 중고차, 수입차, 상용차 등 차는 차는 모두 취급합니다. 신차도 특정 회사 차량만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를 취급합니다. 돌발 변수가 발생해도 경영에 타격을 덜 받습니다. 충실한 리스크 관리도 아주캐피탈의 자랑입니다. 리스크관리(RM) 조직을 자동차금융과 개인금융 부문으로 분리하고 리스크분석팀을 만들었습니다. 또 전문심사역제를 실시하고 자체적인 심사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질적 성장을 우선하는 전략으로 지난해 유류 재점위기가 터졌을 때 영업 축소에 들어가지도 했죠.”

▶중장기적인 경영 목표는 무엇입니까.

“2015년에 총 자산 6조5000억원, 자기자본이익률(ROE) 15%의 우량 캐피탈사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현재 총자산 규모가 5조1000억원이고 ROE는 10%를 다소 밑도는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할 일이 많습니다. 소비 위축에 따른 자동차 판매 부진 등의 변수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불가능한 목표는 아닙니다. 다이렉트 영업 비

이윤종 아주캐피탈 사장은 생명보험, 화재보험, 증권 등을 두루 거친 금융전문가다. 본업은 회계사였다.

최근 해럴드경제 기자와 만난 이 사장은 “5년 동안 회계법인에서 주된 업무인 회계감사, 세무조장을 하면서 재미를 못 느꼈다”며 “뭔가 창의적인 비즈니스를 해 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8월 아주캐피탈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 사장은 금융업계 전반에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2년간 회사에 새 바람을 불어넣었다. 이는 올 상반기에 전년 대비 약 76% 증가한 32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우수한 성적표로 되돌아왔다.

이 사장은 특히 금융회사는 고객을 우선시하

금융회사 최고의 자산은 고객

제1금융보다 좋은 서비스 목표



안정적 영업과 저축은행 시너지

한국경제 2012년 09월 07일 금요일

한국GM물량 확보로 안정적 영업...저축銀 M&A로 시너지 기대

전문가 심층진단

신환중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



아주캐피탈은 설립 5년 만인 1999년 대우그룹 기업개선 대상 계열사로 지정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2005년 대우캐피탈씨알비로부터 경영권을 확보한 아주그룹과 신한은행이 새로운 주인이 됐다. 자본은 아주 산업 69.0%, 신한은행 12.9%

등이다.

아주캐피탈은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악화로 한 차례 더 위기를 겪었다. 급격히 감소했던 취급 실적은 이후 서서히 회복됐으며 2010년 한국GM의 할부 물량을 상당 부분 확보하면서 시장 영향력이 크게 증가했다. 대출자산 규모로 업계 2위이며 신차금융 및 중고차금융 부문에서도 현대캐피탈에 이어 업계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최근에는 아주저축은행(옛 하나저축은행)을 인수해 예수금 조달 및 영업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직은 준비과정으로 시너지 창출은 미약한 수준이다.

◆캐피탈 업계 대출 성장 제한적

캐피탈(할부·리스)업은 수신 기반이 없다.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 뒤 수요자에게

빌려주는 여신전문회사다. 다른 금융회사와 비교해 유동성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약점을 갖고 있다.

자동차, 상용차, 기계의 할부 및 리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주택담보 대출 등이 주요 사업이다. 대출과 고객군의 성격이 은행업보다는 리스크가 높지만, 수익성도 역시 높은 산업이다. 국내 캐피탈업은 크게 대기업이 대우주로 계열사 물량을 확보한 회사와 그렇지 않은 은행계열 회사로 나눌 수 있다.

캐피탈사들의 대출 성장은 내수 성장세 둔화, 가계대출 위험 증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자동차 할부·리스는 자산건전성 측면에서 안정성을 보였으나, PF 대출 분야는 부실채권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2010년 이후 상각, 매각을 통해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연체율 및 고정이익여신비율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개인대출이 빠르게 부실화될 위험은 상존한다.

자금조달 분야는 상당 부분 개선됐다. 금융위기 당시만 해도 돈을 구하는 문제가 캐피탈사들의 목줄을 조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 캐피탈사들 스스로도 유동자산 확보, 크레디트 라인 강화, 펀딩 구조 다변화 등의 유동성관리를 강화해오고 있다. 캐피탈사들의 자본적정성은 '레버리지 규제 도입' 등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합업에 실적 좌우

아주캐피탈은 한국GM 및 쌍용차와 관련한 캐피탈 시장 점유율 1위다. 현대기아차 계열의 현대캐피탈이

車금융비중 전체자산의 84%

자금조달분야 큰 폭 개선

2대주주 신한은행이

크레디트 라인 제공 등 유동성 보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증가 '긍정적'

모기업의 턱을 토포하고 있는 데 반해, 아주캐피탈은 오랜 업력을 통해 쌓은 영업기반이 만만치 않다.

현대캐피탈에 비해 영업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지만 자동차금융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시장 경쟁력을 높여오고 있다. 자동차 금융의 신용위험은 가계신용대출 및 PF대출보다 낮아 대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다.

아주캐피탈은 전체 자산의 84%가량이 자동차 금융자산(신차 비중 62%)으로 이뤄져 있다. 한국GM

및 쌍용차 등의 내수판매 정도가 영업이익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최근 자동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다는 점은 위기요인 중 하나다. 대기업 계열의 캐피탈사는 어려울 때일수록 모회사에 의존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 이와 달리 아주캐피탈은 순수하게 영업력에만 의존해야 한다. 한국GM과 쌍용차가 얼마나 팔리냐에 실적이 좌우될 수밖에 없다.

올해 한국GM과 쌍용차 판매는 다소 증가했으나 자동차 시장은 전반적으로 정체되는 모습이다. 반기 기준 자동차금융 부문 영업이익은 256억원으로 전년 동기과 비슷한 수준이다. 자동차 시장 정체의 영향으로 향후 영업이익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건전성 악화에 대한 잠재적 우려

아주캐피탈은 개인부채(개인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등으로 인해 지난 6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율이 4.0%를 기록했다. 업계 평균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연체율 및 최종 손실률이 낮은 자동차금융 채권이 전체 대출 포트폴리오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고, 고정이익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 또한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다.

올 3월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95%로 작년 말 68%에 비해 증가했다.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경기 둔화로 인한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산건전성 변화 추이에 대한 지속적 관찰은 필요해 보인다.

개인 금융은 대출 포트폴리오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PF대출 비중은 많이 줄어들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관리자산의 1.3%인 467억원에 불과하다.

◆신화은행이 유동성 보완

2009년 상장에 따른 자본 증가와 대출 성장 둔화로 지난 6월 말 현재 아주캐피탈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5.0%로 양호한 편이다.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동차금융자산 위주의 자산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 수준의 자본력은 앞으로도 적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레버리지배율(관리금융자산/자기자본)은 7.5배로 예정 규제수준인 10배 이하를 충족시키고 있다. 증자 등의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주그룹의 대외신인도와 재무여력 등을 고려할 때 그룹의 지원가능성은 높지 않은 수준이다. 2대주주인 신한은행의 크레디트 라인 제공 등은 유동성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된다.

아주캐피탈은 기간별로 자산과 부채를 매치시키는 관리능력이 있어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으로 재무유동성도 갖고 있다. ABS 발행비율을 20% 이하로 유지하고 있어 급격한 시장 변화에 따른 유동성 관리 능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주캐피탈 요약 재무 정보

[신규취급액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총계	27,460	26,828	29,224
자동차금융	23,569	22,012	23,948
승용	13,439	12,825	14,423
상용	3,145	2,235	2,058
산업재	1,489	728	817
중고차	5,495	6,224	6,650
개인금융	2,666	4,090	4,435
기업금융	1,225	727	841

[연체채권율 (+1M)]

구분	2010	2011	2012
총계	4.2%	4.1%	3.86%
총계(PF제외)	3.7%	3.1%	2.97%
자동차금융	2.7%	2.4%	2.33%
승용	1.4%	1.2%	1.32%
상용	3.4%	2.5%	2.52%
산업재	6.5%	8.8%	2.91%
중고차	3.7%	3.8%	5.22%
개인금융	9.8%	6.5%	7.29%
기업금융	15.7%	42.2%	5.59%

[연결 자산 Break down(억원)]

구분	2010	2011	2012
연결 자산	52,735	51,121	58,799
아주캐피탈별도	50,375	48,615	51,093
아주IB	2,886	3,103	2,940
아주저축			5,833
기타(연결조정)	-526	-597	-1,067

[금융자산 잔액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총계	42,122	41,214	43,784
자동차금융	34,460	34,567	36,819
승용	20,167	20,805	22,618
상용	5,075	4,879	5,110
산업재	3,944	2,430	1,633
중고차	5,273	6,452	7,457
개인금융	5,773	5,515	5,656
기업금융	1,889	1,132	1,309

[고정이하여신비율]

구분	2010	2011	2012
총계	4.7%	3.6%	3.5%
총계(PF제외)	3.7%	2.6%	2.6%
자동차금융	2.6%	2.2%	1.5%
승용	1.5%	1.2%	1.0%
상용	3.0%	2.2%	1.7%
산업재	6.6%	9.1%	2.7%
중고차	3.3%	2.7%	2.5%
개인금융	7.9%	4.2%	6.6%
기업금융	33.0%	45.4%	46.8%

[연결 당기순이익 Break down(억원)]

구분	2010	2011	2012
연결 당기순이익	120	623	29
아주캐피탈 별도	-13	533	241
아주IB	128	100	-58
아주저축			-103
기타(연결조정)	5	-10	-51

Thank you